

고용 · 소득관련 변수와 경제적 불안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The Differences in Wive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Variables Related Employment and Income, and Perceived Economic Instability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정서린
교수 장윤옥

Department of Home Economic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Seo Leen Jeong

Professor : Yoon Ok J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wive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variables related employment and income, and perceived economic instability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were constructed with 4 sub dimensions : investment, income · expenditure, risk, and debt management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5 wives. Factor analysis and MANOVA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variables related employment, i. e. employment state of wives and husband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variables related income, i. e. monthly income, additional income, income stability.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perceived economic instability of urban household.

주제어(Key Words): 재무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경제적 불안(economic instability), 투자관리행동(risk management behavior)

I. 서론

가계는 제한된 자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경제체계로서 가계의 경제활동은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계의 경제활동은 가계 내·외부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촉진되기도 하고, 저해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1998년 IMF 이후 사회적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가계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족구성원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불안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가계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개별 가계가 이를 통제하는 것 역시 더욱 어려워짐으로 인해 가계가 지각하는 경제적 불안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주부들은 가계의 경제적 문제로부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또한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한다(이경옥, 2000). 가계의 경제적인 문제는 소득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경제적인 안정은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은 경기,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과 같은 사회의 경제 상태 및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 가계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주소득원의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 소득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별 가계는 소득감소, 실직, 물가상승 등을 가장 불안해 하는 것으로(정혜경, 1999) 보고되고 있다. 이 외 가계에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자원관리자의 자원관리능력 부족을 들 수 있다(유을용, 2002). 즉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적정 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이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및 수행으로 가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제적 위협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

가계가 재무관리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은 가계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소득은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자산으로 축적되어 새로운 소득원천을 형성하

므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가계에서는 고용을 통해 얻게 되는 주소득원의 근로 소득이 가계 소득의 주원천이기 때문에 주소득원의 고용 상태 또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용과 소득에 관한 개별 가계의 지각은 가정자원관리자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홍향숙, 1999). 고용과 소득 상태에 대한 개별 가계의 주관적 지각 그리고 고용과 소득 상태에 대한 객관적 지각 정도에 따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각된 경제적 불안은 가계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감소시켜 재무관리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로 하여금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는 반면, 경제적 불안 상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재무관리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가계의 단순한 소비행동 보다는 이러한 소비행위가 계획되고 수행되는 총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가정자원관리행동 특히 재무관리행동이 주부가 지각하는 경제적 불안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계의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이나 고용 상태만을 측정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보다 다차원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즉 소득이나 고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경제적 안정 상태에 대한 가정자원관리자의 주관적 지각, 그리고 경제적 불안을 구성하는 각 하위부분에 대한 주관적 지각 등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가계는 그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사용하게 되는 재무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주부가 주로 수행하게 되는 재무관리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부들에게 필요한 재무관리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가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개별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의 효과적 수행을 촉진 혹은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실직과 같은 경제적 위기나 위험을 가져오는 사건,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재정스트레스가 대처행동(강이주, 성영애, 1999; 이경옥, 2000) 경제적 복지감(계선자, 유을용, 2002), 소비행동

(김현일, 2001; 정혜경, 1999), 재정만족도(김효정, 2000; 최자영, 임정빈, 1995)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 있으며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홍향숙, 1999)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가계에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는 사건만을 고려하거나, 소득·고용관련 변수만을 경제적 불안정 요인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의 경제적 불안은 가정내의 여러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건뿐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상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에도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계의 소득·고용 관련변수와 가계의 전반적인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부의 주관적 지각인 경제적 불안의 하위영역에 따라 재무관리행동 각 하위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가계가 처한 고용상태와 소득상태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 불안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어떤 재무관리행동을 더 잘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재무관리행동이 간과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계의 고용관련 변수에 따라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2. 가계의 소득관련 변수에 따라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3. 가계의 경제적 불안 정도에 따라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이란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가계의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보전하고 증식시켜 가계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홍향숙, 1999)을 의미하며, 가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안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임정빈, 조미환, 이영호, 1998). 박명숙(2003)은 가계의 경제적 위기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예기치 못한 사고 등 개인의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도 발생하지만, 특정 개인 혹은 가계의 잘못된 재무관리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하며,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위기를 유발하

는 요인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개인의 재무관리능력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며 재무관리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하나는 재무관리행동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재무관리행동을 계획과 수행의 차원에서 측정하는 연구들(김효정, 2000; 이상협, 1999; 임정빈 외 2인, 1998)이며, 또 하나는 재무관리행동을 실제적인 관리행동으로 파악하고, 영역별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한 연구들(정운영, 2001; 홍향숙, 1999)이다. 그러나 도시주부들이 소득문제, 지출문제, 자산문제, 부채문제, 노후연금 자금문제 순으로 가계의 재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재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이정우, 정진희, 1999), 투자의 선택이나 은퇴계획 등이 중요한 재무관리행동 영역으로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 가계는 소득문제와 지출문제 등 극히 기본적인 재무관리행동 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정운영, 황덕순, 홍은실, 2002)고 하므로 다차원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영역별로 측정할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재무관리행동을 영역별로 측정할 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운영(2001)은 재무관리행동을 현금 및 지출관리, 세금관리, 차용관리, 위험관리, 저축 및 투자관리로 구성하며, Parrotta와 Johnson(1998)은 현금, 신용, 위험, 은퇴와 유산, 자본축적, 일반적 재무관리의 6가지 영역으로, 배희선과 최현자(1996)는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으로, 홍향숙(1999)은 소득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행동으로 구성되어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을 투자관리행동, 소득·지출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으로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재무관리연구들은 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결혼 지속년수, 취업상태, 직업, 가족크기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총소득, 총저축액, 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 총부채, 총자산, 매달 갚아야 할 부채 금액 등과 같은 가계의 경제적 특성, 그리고 소득적정성에 대한 인지도나 경제적 상승감, 경제적 기대감, 상대적 박탈감, 주관적 경제 수준 평가, 생활적각감, 경기전망인식, 자원적정인지도 등의 가계 재정관리자의 주관적 특성 등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가계의 주관적 특성이 객관적 특성보다 재무관리행동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가계의 고용·소득관련 변수와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가주주 직업은 현재소득, 미래소득 및 가족구성원의 기호나 선호 뿐 아니라 가계의 소비선호도, 가계의 자산축적행동

이나 부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승신, 김기옥, 김경자, 심영, 정순희, 1996).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는 일하는 동안 소득의 증가를 기대하는 반면 비숙련노동자는 소득이 불확실하고 불규칙해서 장래소득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행동도 달라진다. 또 가계소득의 규모나 안정성은 가계의 저축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저축을 할 수 있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소득이 불규칙한 가계보다 낮은 비율을 저축한다(이승신 외 4인, 1996).

봉급생활자 가계는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에 비해 연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의 흐름을 보여주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계가 농림수산업자와 비정규직 종사자가계보다 수입지출상태가 건전하고 자산부채상태도 양호한 것(성영애, 2003)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유을용(2002)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자산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부채액수가 적을수록 재정스트레스가 적고, 자영업자와 관리·전문직 남편의 주부들이 소득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다고 한다.

김순미(1993)는 기혼여성의 직업과 재무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이 재무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박선옥(1996)은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가 재정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데 이는 기혼여성들의 취업동기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 기혼여성의 직업과 재무관리행동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홍향숙과 이종혜(1999)는 소득안정성이 높고, 취업주부인 경우 소득관리행동과 지출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며, 순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총부채액이 적을수록 투자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보고한다. 이와 달리 김효정(1999)은 남편과 아내의 취업유무, 월가계생활비, 월가계저축액, 재정상태 인지도는 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재정상태 향상감·기대감·열망도, 한국경제상황 향상감·기대감도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정, 2000). 그러나 임정빈 외 2인(1998)은 월평균 저축액이 많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고한다. 또 미래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재정적인 만족이 높다(김정숙, 1996)는 연구결과와 재무관리행동을 잘 수행할수록 재정만족도가 높다고 한 임정빈 외 2인(1998)의 연구결과들로 보아 미래의 재정적 상태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소득은 재정상태 및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무관리행동에도 직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고보선, 이영호, 1995; Danes & Retting,

1993) 정운영과 김경자(2004)는 가계소득의 안정성은 가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이를 매개로 위험관리행동을 높이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즉 소득의 금액과 시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떠한 위험행동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위험구성요소 중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요소라고 한다.

또한 정운영(2001)은 월평균 소득이 많으면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고 빚을 지지 않고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므로 차용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부채를 이용한 투자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적절한 부채를 이용한 체계적인 투자관리행동은 가계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홍향숙(1999)은 2년간 실직경험, 현재직업의 지속가능성을 고용불안정성으로 소득유입시기, 소득액을 소득불안정성 변수로 구성하고,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에 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다른 유형에 속한 가계들보다 소득관리행동과 부채관리행동을 유의하게 덜 하는 것으로,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계에서 세금관리행동을 대체로 잘하고 있고, 지출관리행동은 덜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소득이 안정적인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투자관리행동을 잘하고, 그 다음이 소득은 불안정하나, 고용이 안정적인 가계이며, 특히 고용과 소득 둘 다 불안정한 가계들은 투자와 관련된 행동을 가장 덜한다고 하며, 고용이 안정된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유형에 속한 가계들보다 위험관리와 관련된 행동을 더 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3. 가계의 주관적 경제적 불안과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경제적 안정이라고 할 때 가계 내·외의 사건과 자극에 의하여 경제적 안정이 위협당한 상태를 경제적 불안이라고 한다(황덕순, 1995).

재정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능력, 소득원천의 불확실성, 고용 불안정, 가족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치 못한 소득은 경제적 압박을 유발하고, 개인과 가족체계 전체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짜증을 낸다거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 미래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결혼의 질과 사회활동, 사회적 지지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Vandsburger, 2001).

Voydanoff와 Donnelly(1989)는 경제적 불안이 고용과

소득 요인,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감정 요인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고 하며, 경제적 불안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구조적 요인으로서 소득과 고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고용의 객관적 상태는 실업기간, 횡수, 취업 횡수, 불안전 고용정도, 하위직으로의 이동, 강제조기 퇴직을 포함하고 있는 고용 불안정성으로, 주관적 감정은 실업가능성과 실업기간,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포함하고 있는 고용 불확실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득의 객관적 상태는 저소득, 부족한 재정자원, 소득 감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적 결핍으로, 주관적 감정은 재정자원의 적정도, 재정적 염려와 걱정, 장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적 제약으로 구분한다.

또한 Conger, Elder, Lorens, Conger, Simon, Whitbeck, Huck와 Melby(1990)는 빈곤선에 대한 소득 비율, 경제적 압박, 불안정한 직장생활로 경제적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고, Lorenz, Conger, Simon, Elhitbeck와 Elder(1991)는 소득, 자산, 고용 상태로부터 경제적 압박감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경제적 곤란으로 이어지는데 경제적 곤란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경제적 곤란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정혜경(1999)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주관적·객관적 불안, 소득불안과 고용불안으로 구분하고 주부들은 객관적인 가계의 경제적 상태보다 주관적으로 더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고용 상태 보다는 소득 상태에 대해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의 월평균 소득, 남편의 취업여부, 자산과 같은 경제적 변수는 주·객관적 불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가계의 소비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또 황덕순(1995)은 경제적 불안을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 물가불안, 상대적 박탈감으로 구분하며, 주부들은 고용불안을 가장 크게 지각하며,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불안정도가 객관적 불안 정도보다 상당히 높다고 한다. 또 주부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제적 불안은 소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객관적 불안에는 소득관련변수보다는 자산관련변수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한다.

그리고 홍향숙과 이종혜(1999)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생활하기에 적절하다고 느낄수록 투자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물가불안을 많이 느끼는 가계일수록 부채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보고한다. 이미숙, 고선주와 권희경(2000)은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경제위기 상황이 구체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곤란 상황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부양자 역할에 대한 압력과 기대를 지니고 있는 남편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보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질에서는 부인보다 남편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 경제적 긴장사건이 그대로 가족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지각이 삶의 질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객관적 지표 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이 결혼의 질, 만족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미숙 외 2인, 2000), 소득·고용상태와 관련된 객관적 경제 불안정이 가계의 소비행동(정혜경, 1999), 경제적 대처행동(황덕순, 1995), 재무관리행동(홍향숙, 1999)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 주부가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30대 이상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은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고, 가계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에 따라 가계의 소득과 소비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노자경, 1996)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학령기 자녀를 둔 30대 이상의 주부로 제한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7개 구(동구,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에 각 40부씩 2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45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부실기재된 질문지와 홀부모 가계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25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고용관련 변수

고용관련 변수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남편의 취업여부, 아내의 고용형태(자영업자, 상용직 근로소득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취업자), 남편(또는 가장)의 과거 3년간 실직경험, 현재 직업의 지속가능성,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둔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직예상의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고용관련 변수는 각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225)

| 일반적 특성 | 구 분 | 빈도(%) | 일반적 특성 | 구 분 | 빈도(%) |
|--------|-------------|-----------|---------|-------------|-----------|
| 주부연령 | 31 - 40 세 | 55(24.4) | 남편연령 | 31 - 40 세 | 15(6.7) |
| | 41 - 50 세 | 167(74.2) | | 41 - 50 세 | 195(86.7) |
| | 51세 이상 | 3(1.3) | | 51세 이상 | 15(6.7) |
| 주부학력 | 중학교졸 | 14(6.2) | 남편학력 | 중학교졸 | 6(2.7) |
| | 고등학교졸 | 111(49.4) | | 고등학교졸 | 83(36.9) |
| | 전문대졸 | 36(16.0) | | 전문대졸 | 30(13.3) |
| | 대학졸 | 59(26.2) | | 대학졸 | 80(35.6) |
| | 대학원졸 | 5(2.2) | | 대학원졸 | 26(11.5) |
| 가족원수 | 3명 | 27(12.0) | 결혼지속 년수 | 10년 이하 | 6(2.7) |
| | 4명 | 144(64.0) | | 11 - 15년 | 64(28.4) |
| | 5명 | 39(17.3) | | 15 - 20년 | 130(57.8) |
| | 6명 | 15(6.7) | | 21년 이상 | 25(11.1) |
| 가족형태 | 부모+자녀 | 195(86.6) | 주거형태 | 월 세 | 10(4.5) |
| | 조부모+부모+자녀 | 21(9.4) | | 전 세 | 23(10.2) |
| | 부모+자녀+친인척 | 9(4.0) | | 자 가 | 192(85.3) |
| 월평균 소득 | 100만원 미만 | 12(5.3) | 월평균 생활비 | 100만원 미만 | 25(11.1) |
| | 101 - 200만원 | 38(16.9) | | 101 - 200만원 | 89(39.5) |
| | 201 - 300만원 | 80(35.5) | | 201 - 300만원 | 67(29.8) |
| | 301 - 400만원 | 38(16.9) | | 301 - 400만원 | 30(13.3) |
| | 401 - 500만원 | 33(14.7) | | 401 - 500만원 | 8(3.6) |
| | 501만원 이상 | 24(10.7) | | 501만원 이상 | 6(2.7) |

3~5개 응답 중 하나의 응답을 선택기입하도록 하는 선택기입식의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2) 소득관련 변수

소득관련 변수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가계의 월소득, 월생활비, 남편(또는 가장)의 주소득 외 추가소득 여부, 현재와 미래의 소득안정성 즉,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매달 일정한 시기에 들어오는지의 여부, 재정안전도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소득관련 변수는 각 3~5개 응답 중 하나의 응답을 선택기입하도록 하는 선택기입식의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3) 경제적 불안 척도

경제적 불안 척도는 Vandsburger(2001), 유을용(2002), 정혜경(1999), 황덕순(1995)의 척도를 기초로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1문항은 2개 요인에 걸쳐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34문항을 경제적 불안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내용을 검토한 후 요인 I은 가계의 총소득·자산수준, 저축수준 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한 여유 자금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득·자산불안(9문항)으로, 요인 II는 은퇴 후나 노후, 자녀의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마련, 그리고 비상시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안되어 불안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안정성불안(7문항)으로, 요인 III은 경조사, 친인척 관련 행사,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선택지출불안(6문항)으로, 요인 IV는 생활필수품 구매와 각종 공과금, 자녀의 등록금 납부가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수지출불안(6문항), 그리고 요인 V는 은행, 회사, 주변사람들로부터 빌린 부채가 부담스럽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채불안(5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변량의 70.4%를 설명하며,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요인별로 .93, .92, .90, .91, .89이다.

주부가 지각하는 경제적 불안 정도는 하위영역별로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소득·자산 불안 M=3.45, 재정안정성불안 M=3.29, 선택지출불안 M=2.87, 필수지출불안 M=2.43, 부

(표 2) 고용관련 변수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 Effect | Wilks | Approx.F | Hypoth. DF | Error DF | P |
|-----------------|-------|----------|------------|----------|------|
| 남편의 과거 3년간 실직경험 | .985 | .837 | 4.000 | 220.000 | .503 |
| 남편의 구직예상 | .967 | .569 | 12.000 | 537.379 | .868 |
| 주부고용형태 | .894 | 2.086 | 12.000 | 577.065 | .016 |
| 남편취업여부 | .912 | 5.278 | 4.000 | 220.000 | .000 |
| 남편고용형태 | .965 | 1.754 | 4.000 | 193.000 | .140 |
| 남편직업지속 가능성 | .913 | 1.158 | 16.000 | 611.648 | .297 |

채불안 M=2.89)보다 높으면 상집단으로, 낮으면 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4) 재무관리행동 척도

재무관리행동 척도는 김효정(2000), 정운영(2001), 홍향숙(1999)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총 5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으로 여겨지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2개 요인에 걸쳐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으로 나타나거나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49 문항을 재무관리행동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내용을 검토한 후 요인 I은 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축, 증권투자, 부동산투자의 효과적인 이용과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므로 투자관리행동(12문항), 요인 II는 가계소득의 절대적인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과 실질적 증가를 위한 가계 지출의 효율적인 배분 및 사용과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지출관리행동(17문항), 요인 III은 질병, 사고, 실업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소득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므로 위험관리행동(10문항), 그리고 요인 IV는 가계의 소비 및 경제적 목표달성에 있어 부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상환과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므로 부채관리행동(10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변량의 48.7%를 설명하며,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요인별로 .93, .89, .89, .85이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변량분산분석(MANOVA)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고용관련 변수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가계의 고용관련 변수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재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주부의 고용형태($F=2.086$, $p<.05$)와 남편의 취업여부($F=5.278$, $p<.001$)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효과가 유의한 변수 각각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지출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용직 근로소득자인 주부들이 자영업자인 주부, 임시·일용직 근로소득자인 주부, 그리고 비취업주부들보다 소득·지출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직 근로소득자인 주부들은 다른 취업주부나 비취업주부들에 비해 근로시간에 있어 융통성이 적고, 자유재량의 시간이 부족한 등 시간제약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들은 편의위주의 구매활동과 시간과 화폐를 교환하는 활동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부족한 시간을 대체하려는 경향이 많으므로 가계소득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한 소득·지출관리행동을 다른 주부들보다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남편의 취업여부에 따라 주부의 투자관리행동, 소득·지출관리행동 및 위험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취업한 주부들이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투자관리행동, 소득·지출관리행동

〈표 3〉 고용관련 변수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225)

| 고용관련변수 | | 재무관리행동 | 투자 관리행동 | | 소득·지출 관리행동 | | 위험 관리행동 | | 부채 관리행동 | |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주부고용형태 | 자영업자 (29) | | 3.01 | .71 | 3.29b | .62 | 3.93 | .56 | 3.59 | .69 |
| | 상용직 근로소득자 (50) | | 2.83 | .85 | 2.94a | .53 | 3.55 | .70 | 3.38 | .64 |
| | 임시·일용직 근로자 (26) | | 2.75 | .76 | 3.27b | .51 | 3.65 | .43 | 3.45 | .79 |
| | 비취업주부 (120) | | 3.01 | .83 | 3.26b | .58 | 3.65 | .67 | 3.65 | .67 |
| | F 값 | | 1.175 | | 4.348** | | 2.173 | | .579 | |
| 남편취업여부 | 취업 (201) | | 3.02 | .79 | 3.24 | .57 | 3.70 | .64 | 3.49 | .67 |
| | 비취업 (24) | | 2.27 | .72 | 2.88 | .53 | 3.40 | .63 | 3.29 | .74 |
| | F 값 | | 19.727*** | | 8.041** | | 4.528* | | 1.755 | |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소득관련 변수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 Effect | | | Wilks | Approx.F | Hypoth. DF | Error DF | P |
|----------------|----|----|-------|----------|------------|----------|------|
| 월소득 | | | .853 | 2.016 | 16.000 | 602.483 | .011 |
| 가장의 주소득 외 추가소득 | | | .960 | 2.304 | 4.000 | 220.000 | .050 |
| 월생활비 | | | .942 | .992 | 12.000 | 521.505 | .455 |
| 재정안전도 | | | .862 | 2.770 | 12.000 | 647.000 | .001 |
| 물가변화 | | | .918 | 1.560 | 12.000 | 571.774 | .099 |
| 소득 안정성 | 현재 | 시기 | .905 | 2.748 | 8.000 | 432.000 | .006 |
| | | 금액 | .925 | 2.175 | 8.000 | 436.000 | .028 |
| | 미래 | 시기 | .948 | 1.445 | 8.000 | 430.000 | .176 |
| | | 금액 | .975 | .674 | 8.000 | 430.000 | .715 |

및 위험관리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고용불안이 낮을수록 위험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홍향숙과 이종혜(1999)의 연구결과와 다소 유사하다.

2. 소득관련 변수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가계의 소득관련 변수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재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월소득($F=2.016, p < .05$), 가정의 소득 외 추가소득($F=2.304, p < .05$), 가계에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에 대한 현재의 소득안정성($F=2.748, p < .01$), 가계에 들어오는 소득 금액에 대한 현재의 소득안정성($F=2.175, p < .05$), 재정안전도($F=2.770, p < .001$)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효과가 유의한 변수 각각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보는 바와 같이 가계의 월소득에 따라 주부의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계의 주부들이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계의 주부들에 비해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을 유의하게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의 주소득 외 가계에 추가소득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부의 투자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에 가정의 주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주부들이 없는 주부들보다 투자관리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현재의 소득안정성에 따라 주부의 투자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항상 혹은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오는 가계의 주부들과 동일한 혹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는 가계의 주부들이 일정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 주부들과 항상 소득액이 틀린 주부들에 비해 투자관리행동을 유의하게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안정성이 큰 주부들이 그렇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투자

(표 5) 소득관련 변수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225)

| 고용관련변수 | | 재무관리행동 | 투자 관리행동 | | 소득·지출 관리행동 | | 위험 관리행동 | | 부채 관리행동 | | |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월소득 | 200만원 미만 | (50) | 2.61a | .78 | 3.04 | .55 | 3.38 | .80 | 3.38 | .75 | |
| | 201-300만원 | (80) | 2.85ab | .83 | 3.24 | .59 | 3.66ab | .56 | 3.46 | .66 | |
| | 301-400만원 | (38) | 3.05ab | .68 | 3.22 | .66 | 3.76ab | .53 | 3.52 | .66 | |
| | 401-500만원 | (33) | 3.22b | .89 | 3.34 | .50 | 3.89b | .63 | 3.55 | .79 | |
| | 501만원 이상 | (24) | 3.19b | .62 | 3.09 | .48 | 3.83b | .51 | 3.48 | .47 | |
| F값 | | | 3.238* | | 1.753 | | 6.759*** | | 1.502 | | |
| 가장 주소득 외 추가소득 | 있 다 | (29) | 3.33 | .70 | 3.26 | .57 | 3.80 | .52 | 3.56 | .59 | |
| | 없 다 | (196) | 2.88 | .82 | 3.19 | .58 | 3.64 | .66 | 3.45 | .69 | |
| | F값 | | | 5.092** | | .124 | | .643 | | .306 | |
| 소득 안 정 성 | 시 기 | 항상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 | (89) | 3.09b | .74 | 3.18 | .54 | 3.73 | .54 | 3.49 | .58 |
| | |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 | (74) | 3.01b | .84 | 3.24 | .62 | 3.66 | .71 | 3.42 | .72 |
| | | 일정한 날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 (59) | 2.64a | .84 | 3.18 | .59 | 3.60 | .69 | 3.50 | .77 |
| | F값 | | | 5.973*** | | .237 | | .741 | | .295 | |
| | 금 액 | 매달 소득이 같다 | (54) | 2.98b | .75 | 3.28 | .53 | 3.58 | .60 | 3.37 | .76 |
| | |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 | (132) | 3.03b | .82 | 3.20 | .61 | 3.75 | .60 | 3.55 | .62 |
| 항상 틀리다 | | (38) | 2.60a | .82 | 3.07 | .54 | 3.49 | .79 | 3.33 | .73 | |
| F값 | | | 4.068* | | 1.481 | | 3.110* | | 2.328 | | |
| 재정안전 | 안전한 편이다 | (86) | 3.21 | .73 | 3.24 | .57 | 3.78 | .59 | 3.52 | .66 | |
| | 그저 그렇다 | (65) | 2.95 | .81 | 3.22 | .60 | 3.60 | .63 | 3.39 | .70 | |
| |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 | (51) | 2.61 | .84 | 3.11 | .57 | 3.55 | .74 | 3.46 | .73 | |
| | 전혀 안전하지 않다 | (22) | 2.61 | .76 | 3.15 | .62 | 3.68 | .62 | 3.50 | .59 | |
| | F값 | | | 7.733*** | | .622 | | 1.748 | | .480 | |

*p<.05 **0<.01 ***<.001

관리행동을 더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결과는 가계소득의 안정성이 위험관리행동을 높인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 정운영과 김경자(2004)의 연구결과, 소득안정성이 높을수록 소득관리행동 수준이 높다고 한 홍향숙과 이종혜(1999)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월소득이 높고, 가장의 주소득외 추가소득이 있고, 소득안정성이 높은 가계의 주부들이 공통적으로 투자관리행동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투자관리행동이 현재 가계의 욕구충족이 아니라 1~5년 단위로 가계의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현재의 경제수준에 적절한 투자방법 및 투자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탐색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즉 가족구성원의 현재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재정자원을 가진 가계는 장기목표를 위해 자원을 배분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Goldsmith, 2000) 비록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

서는 부채를 이용한 투자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적절한 부채를 이용한 체계적인 투자관리행동은 가계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유을용, 2002)고 하지만 결국 투자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초과하는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매달 가정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생활하기에 적절하다고 느낄수록 총 부채액이 적을수록 투자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홍향숙과 이종혜(1999)의 연구결과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의 재정안전도에 따라 주부의 투자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 구체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경제적 불안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가계의 경제적 불안 정도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

〈표 6〉 경제적 불안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 Effect | | Wilks | Approx.F | Hypoth. DF | Error DF | P |
|--------|---------|-------|----------|------------|----------|------|
| 경제적 불안 | 소득·자산불안 | .861 | 8.875 | 4.000 | 220.000 | .000 |
| | 재정안정성불안 | .858 | 9.118 | 4.000 | 220.000 | .000 |
| | 선택지출불안 | .949 | 2.948 | 4.000 | 220.000 | .021 |
| | 필수지출불안 | .913 | 5.260 | 4.000 | 220.000 | .000 |
| | 부채불안 | .899 | 6.208 | 4.000 | 220.000 | .000 |

〈표 7〉 경제적 불안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N=225)

| 경제적 불안 | 재무관리행동 | 투자관리행동 | | 소득·지출 관리행동 | | 위험관리행동 | | 부채관리행동 |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소득·자산불안 | 上 (104) | 2.70 | .87 | 3.20 | .64 | 3.61 | .71 | 3.51 | .72 |
| | 下 (121) | 3.15 | .70 | 3.20 | .52 | 3.71 | .58 | 3.43 | .64 |
| | F 값 | 17.737*** | | .002 | | 1.532 | | .922 | |
| 재정안정성불안 | 上 (113) | 2.77 | .87 | 3.25 | .63 | 3.62 | .71 | 3.56 | .71 |
| | 下 (112) | 3.11 | .72 | 3.14 | .52 | 3.71 | .57 | 3.38 | .64 |
| | F 값 | 9.628** | | 1.942 | | 1.269 | | 3.939* | |
| 선택지출불안 | 上 (120) | 2.88 | .86 | 3.27 | .59 | 3.63 | .69 | 3.49 | .69 |
| | 下 (105) | 3.01 | .76 | 3.12 | .56 | 3.70 | .59 | 3.44 | .66 |
| | F 값 | 1.236 | | 3.803* | | .558 | | .332 | |
| 필수지출불안 | 上 (109) | 2.79 | .87 | 3.23 | .60 | 3.54 | .74 | 3.46 | .72 |
| | 下 (116) | 3.08 | .73 | 3.17 | .56 | 3.78 | .52 | 3.48 | .64 |
| | F 값 | 7.370** | | .626 | | 8.460** | | .039 | |
| 부채불안 | 上 (108) | 2.71 | .78 | 3.12 | .58 | 3.52 | .66 | 3.46 | .65 |
| | 下 (117) | 3.16 | .79 | 3.27 | .57 | 3.80 | .60 | 3.46 | .70 |
| | F 값 | 17.687*** | | 4.129* | | 10.387*** | | .005 | |

*p<.05 **p<.01 ***p<.001

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재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소득·자산불안(F=8.875, p<.001), 재정안정성불안(F=9.118, p<.001), 선택지출불안(F=2.948, p<.05), 필수지출불안(F=5.260, p<.001), 부채불안(F=6.208, p<.001)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효과가 유의한 변수 각각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의 경제적 불안 정도에 따라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자산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투자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안정성 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투자관리행동은 잘 하지 못하는 반면 부채관리행동은 더 잘 하는 것

로 나타났다. 또 선택지출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소득·지출관리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지출불안과 부채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소득·자산불안, 재정안정성불안, 필수지출불안, 부채불안이 높은 주부들이 낮은 주부들보다 투자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자관리행동이 현재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미래의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총소득·자산수준, 저축수준,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한 여유 자금, 은퇴 후나 노후, 비상시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가계들은 현재의 가계의 경제적 상태보다는 미래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불안

이 크기 때문에 투자관리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투입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서, 혹은 가계의 투자관리행동으로 인한 위험을 많이 지각하여 투자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실제 가계의 객관적 경제상태와 투자관리행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필수적 지출조차 감당하기 힘들고, 가계부채로 인한 불안을 많이 지각하는 가계는 투자관리행동에 참여할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관리행동을 잘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이 두 유형의 가계들은 가계의 소비 및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해 부채를 이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부채 상환이나 부채이용 관련 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채관리행동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선택지출불안이 높은 주부들이 소득·지출관리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택지출불안이 높은 가계들은 경조사, 친인척 관련 행사,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지출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생활필수품 구매와 각종 공과금, 자녀의 등록금 납부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필수 지출불안이 높은 가계들보다는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여유가 있고, 따라서 가계소득의 절대적인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과 실질적 증가를 위한 가계 지출의 효율적인 배분 및 사용과 관련된 소득·지출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선택성 지출과 관련된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고용과 소득 둘 다 불안정한 가계들이 투자와 관련된 행동을 가장 덜 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위험관리와 관련된 행동을 못한다고 한 홍향숙(1999)의 연구결과, 경제적 불안이 높을수록 가계가 가격중심·양중심·품질중심·사용양식 중심의 소비행동을 많이 변화시킨다고 한 정혜경(1999)의 연구결과와 다소 일치한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소득·고용 관련 변수와 경제적 불안 정도에 따라 재무관리행동 각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령기 자녀를 둔 30대 이상의 가계 주부 225명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변량분산분석, 단변량분산분석,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고용관련 변수에 따라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근로소득자인 주부들이 다른 주부들보다 소득·지출관리행동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취업한 주부들이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투자관리행동, 소득·지출관리행동 및 위험관리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계의 소득관련 변수에 따라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계의 주부들이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계의 주부들에 비해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을 유의하게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계에 가장의 주소득외 추가소득이 있는 주부들이 없는 주부들보다, 소득이 항상 혹은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오는 가계의 주부들과 동일한 혹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는 가계의 주부들이 일정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 주부들과 항상 소득액이 다른 주부들에 비해 투자관리행동을 유의하게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의 경제적 불안 정도에 따라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자산불안, 재정안정성 불안이 높은 주부들이 낮은 주부들보다 투자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지출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소득·지출관리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지출불안과 부채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을 볼 때 가계의 고용·소득관련변수, 그리고 하위영역 각각에서의 경제적 불안 정도에 따라 주부가 수행하는 재무관리행동 수준 또한 하위영역별로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영역에서 보다 경제적 불안을 많이 지각하는가에 따라 이들이 수행하는 재무관리행동 수준 역시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각 가계에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무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고용상태와 소득상태를 보다 면밀히 고려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재무관리행동 역시 보다 상세히 분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가계에 보다 적합하고, 가계가 보다 필요로 하는 재무관리 서비스와 재무관리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용직 근로소득자인 주부들이 자영업자인 주부들이나 임시·일용직 근로소득자인 주부, 그리고 비취업주부들보다 소득·지출관리행동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상용직 근로소득자인 주부들이 다른 취업주부들에 비해 근로시간에 융통성이 적고, 자유재량의 시간이 다른 주부들보다 적은 등 시간제약으로 인해 소득·지출관리행동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이들 상용직 근로소득자 주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소득·지출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이 가정 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주부의 시간제약을 완화시켜주거나, 주부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득·지출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도록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외에 취업여성의 시간제약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기업과 정부의 가정지지 정책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월소득이 높거나 주소소득외 추가소득이 있거나 또는 소득안정성이 큰 가계의 주부들이 투자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계의 투자관리행동에는 소득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투자관리행동의 결과는 미래의 가계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가계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객관적 경제적 불안과 주관적 경제적 불안간에는 정적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고, 본 연구결과에서도 경제적 불안이 높은 주부들이 투자관리행동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써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객관적 경제 불안, 주관적 경제 불안, 그리고 투자관리행동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강이주, 성영애(1999). 가계소득감소 경험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2), 71-83.
 계선자, 유을용(2002). 도시전업 주부의 재정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3-26.
 고보선, 이영호(1995). 가계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 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도 관계분석-체계론의 적용 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김현일(2001). 경제적 불안감이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소비행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2.
 김효정(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 및 경남 지역 주부를 대상으

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5.
 박명숙(2003).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관련변수. *대한가정학회지*, 41(11), 49-60.
 박선옥(1996). 가계재정관리 유형에 따른 재정문제와 그 대처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희선, 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 준비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성영애(200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1), 39-58.
 유을용(2002). 도시주부의 재정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옥(2000). 가계의 경제위기대처행동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3.
 이상협(1999).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141-153.
 이승신, 김기옥, 김경자, 심 영, 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이정우, 정진희(1999). 도시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51-65.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정운영(2001). 재무관리체계모델을 적용한 도시가계의 재무건전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운영, 김경자(2004). 가계 재무위험 구성 요소들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0), 11-22.
 정운영, 황덕순, 홍은실(2002).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재무관리체계모델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25-138.
 정혜경(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자영, 임정빈(1995).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75-189.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향숙, 이종혜(1999). 개인·가계·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2(1), 12-24.
 황덕순(1995).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onger, R. D., Elder G. H., Lorens F. O., Conger K. J., Simon R. L., Whitbeck L. B., Huck S., & Melby J. N.(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uq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 Danes S. M., & Retting K. D.(1993).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4(4), 365-389.
- Goldsmith E. B.(2000). *Resource Management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2nd ed..Minneapolis /St.Paul : West Pub. Co..
- Lorens F. O., Conger, R. D., Simon R. L., Whitbeck L. B., & Elder G. H.(1991). Economic pressure and marital quality: An illustration of the method variance problem in the causal modeling of family pre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373-388.
- Parrotta J. L., & Johnson P. J.(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4.
- Vandsburger E. H.(2001).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y resources on the functioning of families experiencing economic distress.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at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 Voydanoff P., & Donnelly B. W.(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

(2007년 5월 7일 접수, 2007년 10월 22일 채택)